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전주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김관정
전화 063-271-1002

보 도 자 료
2019. 1. 17.(목)

자료문의 : 형사제1부장실
전화번호 : 063-271-1003
주책임자 : 부장검사 신현성

제목 **한전 임직원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 수사결과**
- 한전 1급 간부, 前 ○○본부장 등 15명 기소[5명 구속] -

-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(부장검사 신현성)는, 태양광발전소 관련 **부당한 업무처리**를 하고 공사업체로부터 **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**받는 과정에서 **뇌물을 수수**한 혐의 등으로 **한전 전·현직 간부 4명을 구속 기소, 9명을 불구속 기소**하고, 뇌물을 공여한 **공사업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, 1명을 불구속 기소**하는 등 **총 15명을 기소**하였음

  ※ 기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고 수수 금액이 적은 **한전 현직 직원 30여명에 대하여는 한전본부에 비위사실 통보**

- 수사한 결과, 기소된 직원 13명을 포함하여 한전 전·현직 **임직원 약 60명이 태양광발전소 약 120기를 가족 명의로 차명 보유**한 사실, 공사업체에게 **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** 등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발전소 관련 **뇌물 비리를 적발**하였고, 뇌물로 수수한 **범죄수익 4억여원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조치**를 하였음

- 또한, **한전 ○○본부 감사파트 간부**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간부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**한전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**한 사실도 적발하고 해당 간부를 기소함

1 수사착수 경위

- **감사원**이 태양광발전소 관련 한전에 대한 감사 후 **한전지사 간부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및 금품수수 사건을 고발**하여 이를 단서로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발전소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
- **공사업체에 대한 계좌추적, 압수수색** 등을 통해 다수의 한전 전·현직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, 공사업체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일부를 할인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를 확대

2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한전 간부들은 2013.경 ~ 2017.경 한전 ○○본부장, 지사장, 전력공급팀장 등 지위에서 공사업체로부터 **처,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분양** 받고, **공사대금 중 1,000만원 ~ 1억원 상당 할인받아 뇌물수수**

  ※ 예) 한전지사 前 전력공급팀장은 **전력연계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기술검토**를 해주어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도와주고 **약 3,000만원 뇌물수수**

- 공사업체들은 한전 간부들에게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주고, 한전 간부들로부터 사업 관련 **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일부를 할인해주어 뇌물공여**
- **한전 ○○본부 감사파트 간부**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 중 한전 간부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피감사대상자인 한전 직원에게 **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**

☞ **기소된 한전 임직원 13명 중 12명은 현직 때 수수, 1명은 퇴직 후 수수**
[별첨 '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' 참조]

3 주요 수사경과

- '18. 10. 22. A공사업체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'18. 12. 6. 한전 前 지사 간부 **D○○(3급) 구속기소**
- '18. 12. 10. 한전 ○○본부 압수수색
- '18. 12. 14. 한전 前 ○○본부장 **B○○(1급)**, 前 지사장 **C○○(2급) 구속기소**
- '19. 1. 11. 한전 前 지사장 **A○○(2급)**, B공사업체 **대표 E○○ 구속기소**
- '19. 1. 17. 한전 ○○본부 간부 **F○○(1급) 등 10명 불구속기소**

4 수사 결과

1 한전 임·직원들의 태양광발전소 차명보유 실태 및 뇌물비리 확인

- 태양광발전소는 **정부지원 및 발전량에 따라 연평균 약 15%에 이르는 안정적인 수익률로 인해 '황금알을 낳는 거위'로 인식**되어 국민들의 관심 및 사업 참여가 증가하는 반면, 생산된 전기가 처리되는 한전의 지역별 **전력계통의 연계선로 용량은 한계**가 있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**경쟁 및 이권이 더욱 치열**해지고 있음

  ※ 예를 들어 **태양광발전소 1기(100kw)를 약 2억원에 분양**받은 경우, 전력 판매를 통해 **매달 약 200만원 ~ 250만원의 수익** 발생

  ※ 최근 **선로용량이 부족**하여 태양광발전소의 **추가 허가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**인데, 한전 직원들은 **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태양광발전사업에 선(先)진입**한 것으로 판단됨

- 한전 직원들은 **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**에 따라 **한전의 허가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,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됨**에도,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, 안정성, 내부정보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, **다수의 직원들이 차명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사업자로부터 다수의 태양광발전소를 손쉽게 분양**받고, 별다른 죄의식 없이 **공사대금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관행이 만연한 사실**이 확인됨

  ※ 한전 직원 중 한전 前 ○○ 본부장은 총 **8기**, 前 지사장은 총 **7기**까지 보유함(은행에서 통상 공사대금의 약 60%~70%까지 대출이 이루어짐)

- 이번 수사를 통해 **한전 직원 약 60명이 4개 업체로부터 약 120기의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**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, 그 중 13명은 기소하고, 퇴직자들을 제외한 **현직 직원 30여명에 대하여는 한전본부에 비위사실을 통보**하였음

  ※ A공사업체가 2013년 ~ 2018년 분양한 태양광발전소 약 500기 중 **한전 직원들이 차명으로 약 110기(약 22%)를 분양받은** 것으로 확인되어, 전국적으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발전소 차명 보유 숫자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

  ※ 한편, 2014년 A공사업체가 분양한 △△ 지역 태양광발전소 사업단지의 경우 위치 등 여건이 좋아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, 분양된 태양광발전소 **총 25기 중 22기를 한전 직원들이 모두 선점**하기도 함

2 태양광발전소 사업구조에 따른 갑을관계 형성

-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는 선로정보 확인, 지자체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승인, 전력수급계약(PPA)에 대한 기술검토 승인, 인입공사 제공 등 한전의 **제반 업무과정에서, 한전 직원들이 실질적인 허가업무를 담당하므로 구조적인 갑을관계가 형성**되어, **한전 직원들과의 유대관계 여부에 의해 사업의 성패가 좌우**됨

- 또한, 태양광발전소 사업지, 사업시기가 다양하므로 사업 진행시기 뿐만 아니라 사업 전·후로 **지속적인 갑을관계가 유지**되는 가운데, 한전 직원들은 **공사업체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시**여기고, 공사업체는 한전 직원들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**각종 편의를 얻거나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분양해주고 공사대금 할인 등 이익을 제공**하는 구조임

  ※ 수사한 사례에 따르면, 한전 직원들은 일반인과 달리 **가장 좋은 부지를 지정·선점**하고, 한전 간부임을 내세워 **갈취에 가까운 공사비 삭감을 요구**하고, 온갖 핑계(발전량이 적다, 그늘이 진다, 웅덩이가 있다는 등)를 대며 **막무가내로 수년간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채권을 포기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갑질**을 자행하였음

3 한전 내부감사 기능의 점검 및 혁신 필요

- 한전은 전기공사 관련 뇌물사건 등 각종 비리가 반복되고 있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감사 기능의 엄격한 작동이 중요함

- 그러나, **한전 ○○본부 감사파트 간부**마저도 감사원의 한전에 대한 감사에 대비하여 **한전 간부들의 비리를 축소, 은폐**하기 위해 피감사대상자인 **한전 업무담당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**도 확인됨

  ※ 해당 간부 역시 감사실 재직 중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기를 차명 보유

【 별첨 】

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

순번	성명	직업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A○○	前 한전 지사장(1급)	‘16. 5.경 한전지사장으로 근무 중, B공사업체로부터 처 명의로 발전소 2기를 분양받고, 계약금 4,000만원 대납케 하여 수수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】	구속기소 (‘19. 1. 11.)
2	B○○	前 한전 ○○본부장 (1급)	‘13. 11.경 ~ ’14. 9.경 A공사업체로부터 발전소 8기를 분양받고, 한전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A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 6,000만원을 할인받음【변호사법위반】	구속기소 (‘18. 12. 14.)
3	C○○	前 한전 지사장(2급)	‘13. 11.경 ~ ’14. 9.경 한전지사장으로 근무 중, A공사업체로부터 처 명의로 발전소 4기를 분양받고, 공사대금 5,000만원을 할인받음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】	구속기소 (‘18. 12. 14.)
4	D○○	前 한전지사 간부(3급)	‘14. 2.경 ~ ’15. 3.경 한전지사 간부로 근무 중, 처와 아들 명의로 발전소 3기를 분양받고, 전력계통연계 관련 부당한 기술검토를 하고 공사대금 3,300만원을 할인받음【부정처사후수뢰】	구속기소 (‘18. 12. 6.)
5	E○○	B공사업체 대표	16. 5.경 한전지사장에게 발전소 2기를 분양해주고, 계약금 4,000만원 뇌물공여【뇌물공여】	구속기소 (‘19. 1. 11.)
6	F○○	한전 ○○본부 간부(1급)	‘15. 9.경 한전지사장으로 근무 중, A공사업체로부터 처와 처제 명의로 발전소 2기를 분양받고, 공사대금 4,000만원을 할인받음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】	불구속기소 (‘19. 1. 17.)
7	G○○	한전 ○○본부 간부(2급)	‘18. 5.경 한전지사장으로 근무 중, A공사업체로부터 처 명의로 발전소 2기를 분양받고, 공사대금 1,500만원을 할인받음【뇌물수수】	불구속기소 (‘19. 1. 17.)
8	H○○	前 한전 지사장(2급)	‘13. 6.경 ~ ’17. 9.경 한전지사장 등 근무 중, A공사업체로부터 처, 아들 명의로 발전소 4기를 분양받고, 공사대금 1억원을 할인받음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】	불구속기소 (‘19. 1. 17.)

9	I○○	前 한전 ○○본부 간부(2급)	‘15. 11.경 한전 ○○본부 근무 중, A공사업체로부터 처 명의로 발전소 1기를 분양받고, 공사대금 3,000만원을 할인받음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】	불구속기소 (‘19. 1. 17.)
10	J○○	한전 ○○본부 간부(3급)	‘14. 10.경 한전지사 간부로 근무 중, A공사업체로부터 처 명의로 발전소 1기를 분양받고, 공사대금 4,500만원을 할인받음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】	불구속기소 (‘19. 1. 17.)
11	K○○	한전 ○○본부 간부(3급)	‘15. 5.경 한전지사 간부로 근무 중, A공사업체로부터 처 명의로 발전소 1기를 분양받고, 공사대금 1,000만원을 할인받음【뇌물수수】	불구속기소 (‘19. 1. 17.)
12	L○○	한전지사 간부(3급)	‘14. 10.경 한전지사 간부로 근무 중, A공사업체로부터 처 명의로 발전소 1기를 분양받고, 공사대금 2,000만원을 할인받음【뇌물수수】	불구속기소 (‘19. 1. 17.)
13	N○○	한전지사 간부(3급)	‘14. 12.경 한전지사 간부로 근무 중, A공사업체로부터 딸 명의로 발전소 1기를 양수받고, 양수대금 중 1,800만원을 할인받음【뇌물수수】	불구속기소 (‘19. 1. 17.)
14	M○○	한전 ○○본부 간부(3급)	‘16. 10. 31.경 ~ ’18. 1.경 ○○본부감사파트 간부로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인 한전 직원에게 허위진술하도록 강요【강요】	불구속기소 (‘19. 1. 17.)
15	O○○	A공사업체 대표	‘13. 11.경 ~ ’17. 9. 한전 간부 9명에게 합계 3억 6,100만원 상당의 뇌물공여 【뇌물공여】	불구속기소 (‘18. 12. 6. ‘19. 1. 17.)